



資源開發과

環境保護



李 相 敦

(中央大 法大助教授·法博)

우리나라에서의 環境問題는 주로 汚染 또는 公害 規制의 문제로서 인식되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서는 제법 開發과 관련된 문제로 대두되는 듯하다. 작년의 北漢山 開發의 논쟁은 그러한 면에서 많은 敎訓을 주었다 하겠다. 최근 新聞紙上에서는 에너지 資源의 開發과 관련하여 原子力發電所의 安全性과 核廢棄物의 處理 문제가 자주 오르 내리고 있고, 바로 며칠전의 TV 프로는 干拓事業과 沿岸漁場의 황폐화 문제를 다룬 바도 있다. 한편, 금년 들어서 政府와 與黨은 海洋資源의 開發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全國의 海域別로 水質基準을 設定하고 海洋汚染防止法을 개정하여 海洋汚染의 防止를 강화하겠다고 公約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環境保護問題가 資源開發과 관련되어 인식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중 요즘은 논의가 활발한 原子力에너지의 開發과 海洋環境問題에 대하여 筆者가 느끼고 있는 바를 몇자 적어 볼까 한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原子力에너지의 利用은 하나의 現實이 되어 버렸다. 社會一角에서 아무리 原子力發電所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더라도 原子力에너지를 우리 사회로부터 追放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石油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와

같은 처지로서는 原子力에너지야말로 풍요로운 21세기를 보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資源일 것이다. 그러나, 原子力에너지는 다른 에너지源과는 다른 특유한 측면을 갖고 있다. 原子力發電所에서의 만일의 事故는 그야말로 大慘事를 초래할 수 있으며, 수백년이 지나도 放射能을 띄고 있을 核廢棄物을 산출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核에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原子에너지의 開發은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몰아 붙이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에너지資源의 개발은 危險性을 갖고 있다. 炭鑛에서의 잦은 事故로 얼마나 많은 鑛夫가 죽거나 부상하며, 또한 塵肺症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은 人命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희생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가장 위험한 에너지源은 단연 石炭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 石炭을 사용하는 火力發電所가 뿜어내는 탄산가스와 아황산가스가 야기하는 肺疾患과 酸性雨를 추가한다면 실로 石炭이야말로 「元凶」이라고도 하겠다. 물론, 우리는 原子에너지를 방만하게 생각하거나 다루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原子에너지의 代替資源이 거의 없다는 現實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부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原子力發電所가 과연 安

순한가, 그 立地가 적절한가, 核廢棄物의 處理對策은 서있는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再處理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들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政府의 明確한 政策提示가 없다는 점이다. 國內의 原電은 安全하다는 韓國電力 側의 主張은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政府가 核廢棄物의 處理對策에 관하여 政策的인 次元에서 解答을 제시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原子에너지의 위험한 側面만을 강조한 反對論의 대두를 촉진하지 않을까 한다.

흔히 西洋사람들은 自然을 정복하며 살아왔지만 東洋사람들은 自然과 調和를 이루며 살아왔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 命題가 과연 현재에도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오늘날의 西洋사람들이야말로 自然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엄청난 人口에 비하여 土地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國土擴張」事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하여 干拓事業이다. 瑞山알바다의 干拓事業은 그 規模가 가히 세계적이라고 하겠고, 光陽灣에서도 製鐵工場 부지의 조성을 위하여 역시 干拓事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隣近漁場의 被害를 補償하고 있는데 이과정에서 補償額을 두고서 다소 논란이 있는 듯하다. 干拓事業은 陸地를 새로이 達成하여 農業을 가능케 하는 效果를 가져온다. 그러나 干拓事業은 人근의 海洋生態界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惡影響을 수반한다. 따라서, 事業의 妥當性을 事前에 철저히 評價할 것이 필요하다. 環境影響評價制度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무엇보다 緊要할 것이며 앞으로의 干拓事業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여하튼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干拓事業은 그대로 진행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막대한 새로운 土地의 소유권을 私企業體에 준다는 것 그리고 적절한 環境影響評價도 없이 시작된 事業이라는 것 등의 論難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이다. 그 企業은 적절한 法的 節次를 거쳐 事業許可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막대한 資金을 들이고 있으며, 또한 事業의 許可를 받을 당시는 環境保全法

이 效力을 발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企業은 매우 合法的이고 正當한 事業活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筆者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를 보도하는 言論機關 특히 T.V.의 報道方式이다. 한결같이 「檀君 이래의 大役事」이니 「地圖를 바꾸는 壯學」이니 또는 「人間의 自然에 대한 勝利」라는 原色の 표현을 쓰고 있다. 언제부터 白衣民族인 우리백성이 이토록 戰鬪의 으로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 넓은 滿州땅을 포기하여 자신의 영역을 半島로 국한시킨 것이 우리의 祖上이며, 왜구의 노략질에 못이겨 울릉도에 대하여 空島政策을 써서 日本이 獨島를 自國領이라 주장할 수 있는 구실을 준 것도 우리의 祖上이었다. 그 후예들이 오늘날 自國의 領土를 상대로 「無限한 排戰」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야말로 問題다. 責任있는 大衆媒體라면 干拓事業이 수반하는 막대한 生態學的 副作用에 관하여 問題點을 제시하고 또한 왜 우리가 이와 같은 事業을 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式으로 착잡한 報道를 하여야 했을 것이다.

지난 1월말에 民正黨의 李鍾贊 원내총무를 통하여 政府와 與黨은 環境汚染防止基金으로 1천 억원을 조성하며, 邑面 단위의 下水處理 시설을 설치하며, 海域別 水質基準을 설정하고 海洋汚染防止의 強化를 기할 것을 公約으로 내건바 있다. 매우 주목할만한 政策提議이었지만 「安定」과 「民主」와 같은 거창한 選舉爭點에 둘러서 별다른 注目도 받지 못한 것 같다.

環境汚染의 規制를 위하여는 단순히 排出을 規制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미 저질러진 汚染 상태를 淸소하여 復舊하는 것이 필요하다.

1980년에 Carter 行政府의 마지막 순간에 議會를 통과한 美國의 Superfund Act는 바로 이미 저질러진 有毒廢棄物 汚染地點을 淸소하도록 하는 法律로 아마도 좋은 본보기가 될 듯 싶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미 저질러진 汚染의 除去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그러한 財源을 政府와 관련 業界가 같이 營業하는 方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海洋汚染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매우 운이 좋았다고

하겠다. 南海의 蠶繭殖場의 피해 등을 들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아직 운이 좋았냐고 反問을 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筆者는 우리나라가 아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울산이나 여수의 精油所에는 25만톤급의 油槽船이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등의 과장이 없이 그정도 油槽船이 南海에서 좌초하거나 충돌하여 침몰하는 경우에는 목포에서 부산까지의 南海岸을 검게 汚染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Torrey Canyon號와 Amoco Cadiz號의 敎訓을 우리는 결코 남의 일처럼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油類汚染事故와 싸우는 일은 高度의 전문적 능력과 장비를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海運業界나 관련 政府機關이 그러한 能力을 현재 갖추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단 1 件의 大型油槽船 事故가 얼마나 큰 被害를 초래하였나를 英, 美, 佛의 經驗에 비추어서 제말 심각하게 숙고하여 주셨으면 한다.

海洋汚染의 문제와 더불어 작년 가을에 타임誌에서 읽은 記事가 하나 생각이 난다. 드디어 海上燒却 專用船을 건조하여 취역시킨 記事였다. 海上燒却 (incineration at sea) 이란 有毒産業廢棄物을 船舶에 싣고 茫茫大海에 나가서 高熱로 태워 버리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廢棄物을 陸地에 묻어 버리거나 바다에 버렸다. 그러나, 陸地에

묻은 廢棄物은 - Love Canal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 公衆保健을 매우 위협하였다. 그리고 바다에 버리는 것도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것임이 또한 밝혀졌다. 海洋環境을 너무나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72년에 체결된 London協約은 有毒物의 海洋投棄를 금지시켜 버린 것이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리하여 고안된 것이 海上燒却이다. 陸地에서 燒却할 경우의 끔찍한 大氣汚染은 茫茫大海에서는 별문제가 안된다. 따라서 海上燒却은 가장 經濟的인 有毒廢棄物의 處理方法으로 대두한 것이다.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점은, 先進國은 바다 한가운데서 특수한 船舶을 사용하여 태워버리는 그러한 廢棄物들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海洋汚染防止法을 改正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도 검토되었으면 한다.

보다 쾌적한 環境에서 살고 싶은 것은 모든 人間의 念願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政府 뿐 만 아니라 民間의 智慧도 동원되어야 할 것이며, 國民的 合意에 기초를 둔 環境政策과 環境法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國會議員 선거가 끝나고 與黨의 代表委員은 民意를 수렴하는 政治를 펴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약속이 環境分野에서도 지켜지기를 바란다. *

* 네가가꾼 환경속에

자손만대 웃고산다. *